

캠코더로 찍고 바로 본다

프로젝터의 진화... 2D서 3D 변환도 거뜬

80인치가 넘는 대형 TV까지 나온 마당에 프로젝터는 이미 용도 폐기됐다고 속단하기 쉽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에 속 들어간 프로젝터와 스마트폰 영상을 바로 쏘아 주는 프로젝터, 야외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로 즐길 수 있는 미니 프로젝터, 어디서나 가상 터치스크린을 만들어 내는 프로젝터 등 진화는 지금도 쉽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영화는 큰 화면으로 봐야 제맛이다. 그렇다고 보고 싶은 영화를 모두 극장에서 즐기기에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제대로 영화를 감상하려면 TV보다는 프로젝터가 제격이지만 천장에 커다란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한다. 최근 잇따라 등장한 휴대도 편하고 사용도 쉬운 프로젝터에 눈길이 가는 것도 그래서다. 프로젝터 기능을 담은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나 아이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프로젝터, 2D(평면) 영상을 3D(입체)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프로젝터 등 톡톡 튀는 기능을 담은 제품들을 소개한다.

촬영 후 바로 본다

소니코리아의 'HDR-PJ' 시리즈는 세계 최초의 프로젝터 내장형 캠코더다. 별도의 케이블이나 추가 액세서리와 프로젝터용 스크린이 없어도 된다. 그저 하얀 천이나 벽만 있으면 야영장이든, 기차 안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금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대형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은 최대 100인치까지 키워 HD 고화질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본래 용도인 촬영 기능도 경쟁 제품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최고 수준의 손떨림 보정 기능 덕분에 줌을 당길 때이나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에도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영상 기록이 가능하다. 바람 소리 제거 기능 또한 탁월해 사람 목소리 등을 선명하게 담을 수 있다. 사람 얼굴은 물론 강아지, 사물 등 선택된 피사체의 초점을 빠르게 잡아내 자동으로 추적한다. 가격은 99만9천~119만9천 원.

니콘의 '쿨픽스 S1200pj'는 프로젝터 기능이 달린 디지털 카메라로 용도가 다양하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연결해 유튜브 등의 실시간(스트리밍) 동영상과 웹사이트의 내용도 보여 준다. 아이폰과 연결하면 MS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문서 파일도 자유롭게 띄울 수 있어 업무용으로도 그만이다. 45만 원.

스마트TV 못지않은 프로젝터

LG전자의 '미니빔 TV'는 셋톱박스 없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다. 핸드백에도 쉽게 들어가는 780g짜리 초소



소니코리아 HDR-PJ



니콘 쿨픽스 S1200pj

형이지만 야외에서도 소형 안테나만 달면 TV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볼 수 있다. 국내 휴대용 프로젝터로는 최초로 1,280×800 크기의 HD급 화질을 제공하며 최대 100인치까지 커지는 화면으로 TV의 답답함도 날려 버렸다. 무선 홈 네트워크 기술 표준인 DLNA를 적용해 인터넷 선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PC, 태블릿PC 등 다른 기기 로 자유롭게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특히 PC에 연결하지 않아도 문서 파일 대부분을 실행할 수 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용이나 날씨 정보 검색, 게임 실행 등이 가능해 스마트TV 부럽지 않다. 109만 원.



LG전자 미니빔 TV

2D를 3D로 바꾼다

2D 영상을 3D 영상으로 바꿔 주는 프로젝터가 나와 영화광 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D 프로젝터는 진작 나와 있지만 2D를 3D로 변환시키는 제품은 옵토마의 '3DS1' 과 '3DW1' 이 최초다. 컴퓨터에서 재생된 2D 영상이 고화질 영상처리장치인 HDMI 단자를 통해 HD급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3D 영상으로 변신한다. 별도의 송수신기가 필요 없 고 3D 안경만 있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 주는 보안 장치도 있다. 61만4천~90만 원.



옵토마 3DS1

아이폰이나 아이팟을 상단에 꽂고 저장돼 있는 영상을 큰 화면으 로 감상하는 옵토마의 '네오-아이'도 독특한 프로젝터다. 투사 거리에 따라 화면을 120인치까지 키울 수 있고 16와트 스테레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질은 꽤 박력 있다. HDMI나 VGA 단자도 갖춰져 있어 PC는 물론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X박 스360, 플레이스테이션3 등의 게임기도 연결할 수 있다. 이처럼 팔방미인의 재주를 갖췄지만 무게는 1kg밖에 안 된다. 55만 원.



옵토마 네오-아이

프로젝터와 터치스크린의 만남

영국의 벤처회사 라이트블루옵틱스의 초소형 프로젝터 '라이트 터치'는 영화 에서나 보던 기술을 현실화한 제품으로 즉석에서 터치스크린을 만들어 키보드나 마우스를 대신하는 입력장치로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벽이건 바닥이건 테이블이건 평평한 곳은 모두 터치스크린으 로 돌변한다. 홀로그래피 레이저 프로젝션(HLP)으로 투사한 영상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적외선 광학센서가 감지해 입 력시키는 원리다. 터치스크린의 크기는 약 10인치이며 일반 적인 동영상은 약 15루멘, 기호 등은 약 35루멘의 밝기로 투사한다. 내장 메모리 용량은 2GB이지만 플래시 메모리 카 드를 이용하면 최대 32GB까지 확장된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 전하면 최대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라이트블루옵틱스 라이트 터치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